

# 1960년대 중엽 - 1990년대초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필리핀인민의 투쟁

전 미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다른 나라의 령토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와 침략군대를 철거시키며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76권 282페이지)

자기 나라안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실현할수 없다.

말라카해협을 비롯한 국제적인 해협들과 중요항구들이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은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유리한 지리적조건과 군사전략적중요성으로부터 미제는 일찍부터 이 지역에 눈독을 들여왔다. 특히 미제는 동남아시아지역의 관문인 필리핀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여왔다.

미제는 1947년 3월 16일 필리핀에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미국-필리핀기지협정》을 강요하고 23개의 지역을 99년간 미군사기지로 리용할 권한을 빼앗아내었다.

미제는 그후 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필리핀인민들과 동남아시아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 1966년 미협정의 유효기간을 25년으로 하고 기지사용기간을 1991년 9월까지로 하였다. 필리핀에 설치된 침략적군사기지들은 미제의 아시아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되었으며 특히 월남전쟁기간 미군의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되었다.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의 설치로 필리핀인민은 민족적자주권과 령토완정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그리하여 필리

핀인민은 자기 나라에 존재하고있는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필리핀인민의 투쟁은 월남전쟁이 시작된 1960년대 중엽부터 세차게 벌어졌다.

당시 미제의 군사기지철폐투쟁은 미제의 월남전쟁을 반대하는 반미, 반정부투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미제는 1964년 8월 4일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고 월남전쟁을 일으켰으며 필리핀을 저들의 병참기지로 만들고 침략전쟁수행의 돌격대로 내세웠다. 필리핀인민들은 불평등적인 미국-필리핀기지협정을 폐기하며 월남과병과 미제의 내정간섭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강력한 반미, 반정부시위들을 벌여왔다.

1966년 10월 24일 마닐라에서 수천명의 학생들과 인민들이 월남과병을 반대하여 《미제를 타도하자》라는 구호판들을 들고 대규모적인 시위를 벌리면서 대통령궁전과 미국대사관, 미국대통령 존슨이 머물러있던 마닐라호텔로 행진하였다. 이러한 반미, 반정부시위는 1967년과 1968년에도 계속되었다.

필리핀에서 미제의 군사기지철폐투쟁은 1968년과 1969년에 감행된 미제침략군놈들의 살인만행을 계기로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필리핀에 있는 저들의 군사기지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하면서 강점자처럼 행세하던 미제침략군놈들은 1968년초 제놈들의 군사기지부근을 지나가는 필리핀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살해하였고 1969년 6월에는 마닐라근처에서 필리핀로동자를 총으로 쏘아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10월에는 클라크공군기지에서 17살난 필리

핀소년을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히는 등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살인만행에 격분한 필리핀인민들속에서는 반미감정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악의 근원인 미군사기지를 철폐시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1968년 8월 마닐라에서는 수천명의 로동자,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앞에서 필리핀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의 철폐를 요구하여 항의시위를 벌리었으며 9월에는 필리핀과 미국사이에 맺은 《협정》들의 폐기를 요구하여 미국대사관에 돌벼락을 안겼다. 10월 4일에는 수천명의 격노한 군중들이 클라크미공군기지부근에서 미제의 허수아비들을 불태워버리면서 이 기지의 출입구를 2시간동안이나 봉쇄하였다. 특히 필리핀인민들은 1969년 7월 월남전쟁에 필리핀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일 목적밑에 미국대통령 닉슨이 필리핀에 기여들자 《미제국주의는 세계에서 첫째가는 원쑤다》, 《닉슨은 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들고 미국대사관에 몰려가 미국기발을 불태워버리면서 반미시위를 벌렸다.

필리핀의 각 민주단체들은 선언을 발표하여 미제침략군의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필리핀에서 미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힘을 합쳐 싸울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필리핀인민들은 자체로 폭탄을 만들어 미국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겼으며 1969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만도 클라크공군기지앞과 그 기지로 통하는 도로들에서 다섯번이나 폭발물공격을 진행하여 미제침략군 19명을 살상하였다.

필리핀인민들은 미제침략군놈들의 야수적만행을 목인하고있는 마르코스친미반동정권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반정부시위를 벌리었다.

인민들의 이러한 기세에 겁을 먹은 필리핀정부는 11월 중순 미국과 체결한 모

든 불평등적인 조약들을 재검토할데 대하여 미국에 요구하였으며 1969년 12월에는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파견하였던 필리핀고용군 2 000여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필리핀공산당의 령도밑에 필리핀인민은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철폐를 위한 무장투쟁도 힘있게 벌렸다.

1965년 마르코스친미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된 후 공산당의 령도밑에 새 인민군의 무장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였다. 새 인민군은 소부대활동으로부터 대부대활동으로 넘어갔으며 습격전, 매복전, 공격전 등 여러 형태의 주동적인 작전을 진행하였다.

새 인민군은 1968년 9월 중부루손섬과 마닐라북쪽지역에서 수십차례 적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80여차례의 전투에서 미제침략군과 반동정부군 200여명을 살상하고 그 투쟁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반정부기관지 《마리아》는 《1985년 <새 인민군>력량은 전국 73개 주중에서 63개 주에서 59개의 빨찌산전선을 형성하고 정규빨찌산은 12 000명, 비정규빨찌산은 18 000명으로 장성하였다.》고 전하였다.

인민들의 반미투쟁이 강화되고 월남전쟁에서 미제의 패망이 시간문제로 되자 마르코스친미정권은 할수없이 1972년 6월에 《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을 심각히 검토할데 대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필리핀인민들의 과감한 반미투쟁과 월남전쟁에서의 참패로 하여 미제는 할수없이 필리핀에서 6개의 군사기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군사기지들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필리핀인민의 투쟁은 1970년 중엽부터 필리핀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월남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그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렸으며 필리핀 정부는 더는 미국과의 안보정책에 기대를 걸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세차게 벌어진 중립지대창설을 위한 투쟁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외국의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말며 민족적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주요한 목표로 제기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필리핀 정부는 1975년 4월에 미군기지에 대한 관리권회복, 군사원조협정과 호상방위협정의 재검토를 미국에 거듭 요구하였으며 1977년 11월에는 미제와 필리핀군사기지리용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이 협상에서 미국이 군사기지들에 대한 필리핀의 자주권을 인정하며 기지면적을 축소하고 기지사용료를 지불하며 5년에 한번씩 기지협상을 재검토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필리핀정부의 요구가 얼마간 반영된 미국-필리핀기지협정이 1979년 1월 7일에 정식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군사기지들에는 필리핀군사령관들이 임명되었으며 클라크공군기지는 5만 2 000ha로부터 8 000ha로 축소되었다. 물론 필리핀군사령관은 미군기지 안에서 그 어떤 실권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미국이 이전처럼 제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제는 이 협정에서 몇푼의 딸라를 주는 대신 필리핀기지를 마음대로 리용할 권한을 빼앗아냈으며 1983년 7월 1일에 체결된 필리핀기지사용에 관한 협정에서도 1985-1989년기간에 9억US\$의 기지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필리핀기지리용에 관한 무제한한 권리를 획득하였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필리핀인민의 투쟁은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적극화되었다.

1986년에 필리핀에서 친미적인 마르코스정부가 붕괴되고 진보적인 아키노정부가 수립되면서 반미기운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 시기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필리핀인민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은 물론 군부와 정부안에서까지 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었다.

1988년 4월 마닐라에서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미군사기지와 관련한 회담때 필리핀외무상은 《필리핀에 있는 미군사시설들은 이 나라의 대외방위에는 무익한것이며 오로지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 있는 미군사기지들이 동남아시아의 방위를 위하여 사활적이라는 미국의 립장을 접수할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필리핀의 한 상원의원은 상원회의에서 《미국의 군사기지들은 우리 나라의 령토안전과 우리의 민족적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의 땅에서 미국의 기지들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필리핀군장교들도 군사기지의 철폐를 미국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필리핀애국동맹과 필리핀청년학생련맹성원들 약 300명은 미군기지반대구호를 들고 미국기발을 불태우면서 미국대사관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으며 필리핀에 미군기지를 둔것은 필리핀의 자주권에 대한 유린이며 《미국식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필리핀공산당의 무장력인 새 인민군은 미군을 반대하는 전면전쟁을 선포하면서 《제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죽일것이다.》, 《새 인민군은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필리핀의 모든 지역 및 부대지휘부, 모든 장병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것을 맹세한다.》라고 성

명하였으며 도처에서 미군과 미군기지들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여 1988년 상반기에만도 수십명의 미군을 살상하였고 1990년 5월 13일에는 2명의 미군비행사를 죽이였다.

필리핀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압력으로 미제는 1991년 6월에 필리핀에 있는 6개의 군사기지들 가운데서 부차적인 4개의 군사기지들을 필리핀에 돌려주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필리핀인민의 투쟁은 랭전종식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랭전종식후 필리핀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완전철폐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 시기 필리핀에는 2개의 군사기지 즉 미제의 해외군사기지중에서 가장 큰 수비크해군기지와 클라크공군기지만이 남아있었다.

수비크해군기지는 미제의 가장 큰 해외해군기지로서 태평양서부와 인디아양에서 활동하는 미 제7함대의 군함들이 리용하는 중요기지였다. 이 기지에는 10만t능력의 탄약고, 200여대의 해군비행기를 수용할수 있는 비행장과 근 40대의 각종 항공기들, 약 50척의 배를 수리정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항이 있었다. 아시아지역에 있는 모든 미해군함선들에 대한 지휘통제의 중심지로 되고있는 이 기지에는 약 7 000여명의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하고있으며 기지부근의 수천ha의 땅이 치외법권지대로 되고있었다.

클라크미공군기지 역시 미제의 해외공군기지들중에서 제일 큰 기지로서 13만 acre의 면적을 차지하고있었다. 여기에는 미 제13공군사령부와 그 소속의 제3전술 전투항공단 등 관하부대들,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와 수송기들, 8 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었다. 이 기지에는 정교한 전

자장치와 핵무기들, 다량의 탄약이 저장되어있었으며 주로 조선과 중동에서의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는 보급기지로 되고있었다.

미제는 이 기지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전략에서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랭전이 종식된 1991년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1991년 8월 필리핀과 새로운 군사기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두 나라사이의 기지협정기한이 1991년 9월 16일에 끝난 후 클라크공군기지는 1992년 9월까지 필리핀에 넘겨주며 수비크해군기지는 10년간 더 보유하기로 하였다. 미제는 기지사용료로 1992년에 3억 6 100만US\$를 필리핀에 주며 나머지 9년동안은 해마다 2억 3 000만US\$를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군사기지사용기한연장을 골자로 한 협정은 1991년 8월 필리핀국회 상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됨으로써 휴지장이 되였으며 이로써 미국의 기도는 완전히 파탄되고말았다.

1991년 11월 클라크공군기지가 철폐된데 이어 1992년 3월에는 수비크해군기지가 필리핀정부에 이관되였다.

이리하여 오랜 기간 필리핀령토에 존재하였던 미군기지가 종국적으로 완전히 철폐되였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투쟁에서 필리핀인민들이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다.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를 완전철폐하기 위한 필리핀인민의 투쟁과 그 승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이룩하고 동남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투쟁으로만 쟁취할수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었다.